

투데이 칼럼

고즈넉한 사찰을 가다... 내소사 대응전

이 곳에 오면 '모든 것이 소생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관음봉, 세봉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에 아늑히 자리잡은 내소사. 내소사 일주문부터 천왕문에 걸쳐 1km에 전나무가 울창한 터널을 만들고 있다. 전나무 숲길은 변산 팔경의 으뜸으로 여길 만큼 아름답다. 내소사의 인상적인 첫 느낌과 단아한 숲길. 또한 내소사 대응전은 조선 인조 11년인 1633년에 지어졌는데 건축양식이 매우 정교하고 환상적으로 조선 후기 사찰 건축의 대표적 작품이다. 월봉 '진성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내소사는 진성스님이 오랫동안 내소사에서 수행했고 지금은 주지스님으로 내소사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있어 무엇보다 고마움이 앞선다. 어느 사찰이든 사찰의 중심이 되는 대응전(대웅보전)의 경우 내부는 물론 외부도 화려한 단청을 하고 있지만, 내소사가 딱히 좋았던 건 처음부터 건물에 단청을 입히지 않거나 단청을 했더라도 매우 자연스러워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하고 착해진다. 예전에 처음 내소사를 방문했을 때 부처님은 뒷전이고 나는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단정한 시간의 결을 간직한 마치 수목화 같은 건축물들에 살짝 혼을 놓았던 것 같다. 능가산 자락에 위치한 내소사 대응보전으로 들기 위해선 봉래루를 통과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런데 그 봉래루 건물을 받들고 있는 서까래에서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나무 속 작은 문양을 찾았고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완벽한 꽃모양과 부처님의 눈을 연상하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여름 내소사에 도착하는 순간 무언가에 홀린 듯 그 기억이 되살아났고 걸음을 재촉하게 되었는데 지금껏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만큼 어찌먼 사소하기 그지없는 자연문양(자연이 만든 만다라라고 믿고 싶었다) 하나가 나 같은 사람에겐 특별한 의미가 된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지, 나는 까맣게 잊고 있던 그것을 찾아 확인해보고파 차에 시동을 끄는

순간부터 달뜨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아니면 내 기억이 잘못된 건지, 봉래루를 찬찬히 돌면서 내 머리 높이 만큼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찾는 데는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난만 아는 그 만다라를 다시 찾았을 때 느낀 야릇한 희열감이란, 한 뼘도 채 안 되는 크기에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건물 귀퉁이에 무심한 듯 자리를 잡은 꽃문양과 부처님의 눈. 나무의 결에 시간이 더하여져 마치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언제 보아도 위엄과 기품을 갖춘 대응보전 기둥과 아름다운 문살무늬, 기와지붕이 가진 수려한 라인 우리 사찰의 건축미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봉래루를 통과하면 정면에 대응보전이 있고, 왼편으로는 무실당 오른쪽으로 실선당이 마주 보고 있는데 이 간결하고 단아한 건물 또한 언제봐도 아름답다는 감탄사를 절연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응보전 벽과 천장을 장식한 불화는 불화대로 조금만 공부하고 보면 넋을 놓고 보기에 충분하다. 현대인의 일상이 모던함과 최첨단 문명에 길들여 있던 오래된 사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시간의 결을 되살려주는 동시에 속도에 편승하지 않고 순하게 흘러가도록 원래의 시간을 회복시켜 준다고 할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교관과 상관없이 사찰을 찾는 이유는 대개의 사찰이 깊은 산자락 울창한 산림에 둘러싸여 있어 그 자체로 자연적인 도량이 되기도 하거나 나무의 수령이 곧 사찰(안자 포함)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발품을 팔더라도 입을 닫고 귀는 열고 자신의 두 발로 걸어 그 호젓한 길로 들고나는 과정이야말로 사공을 초월한 힐링의 한 방법이고 대 자연 속에서 나를 풀어 주는 나만의 여행이 아닐까 싶다. 인공적인 빛과 소음과 속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즈넉한 사찰여행이 필요한 이유였다.

독자제언

나 자신을 위해 음주운전 하지 말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된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0.03%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나 사망 발생은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는 면허취소, 합리적 이유 없는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취소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가져온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시리아 진입 준비하는 터키군



15일(현지시간) 터키 군인들이 터키 남동부 가지안테프 주 카르키미스 국경지역 장갑차 주변에서 시리아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터키는 자국의 토벌작전에 맞서 과거 적대 관계였던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손 잡은 쿠르드족을 향해 '아사드 정권과 비열한 거래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파레틴 알톤 터키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사설

새만금 사업 전복 업체 참여율 높여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주문했던 것이니 새로운 언급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 이쪽의 이익도 생각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업체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북도와 먼저 협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전북 지역의 업체들도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겠다. 다시 말하기니와 새만금 사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럼 세월이 너무나 오래이다. 사업 초기부터 그랬으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만금개발청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야 한다. 예전 방식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거나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북도와 정기적으로 생각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저번에 도지사 새만금발전이 전격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으니 공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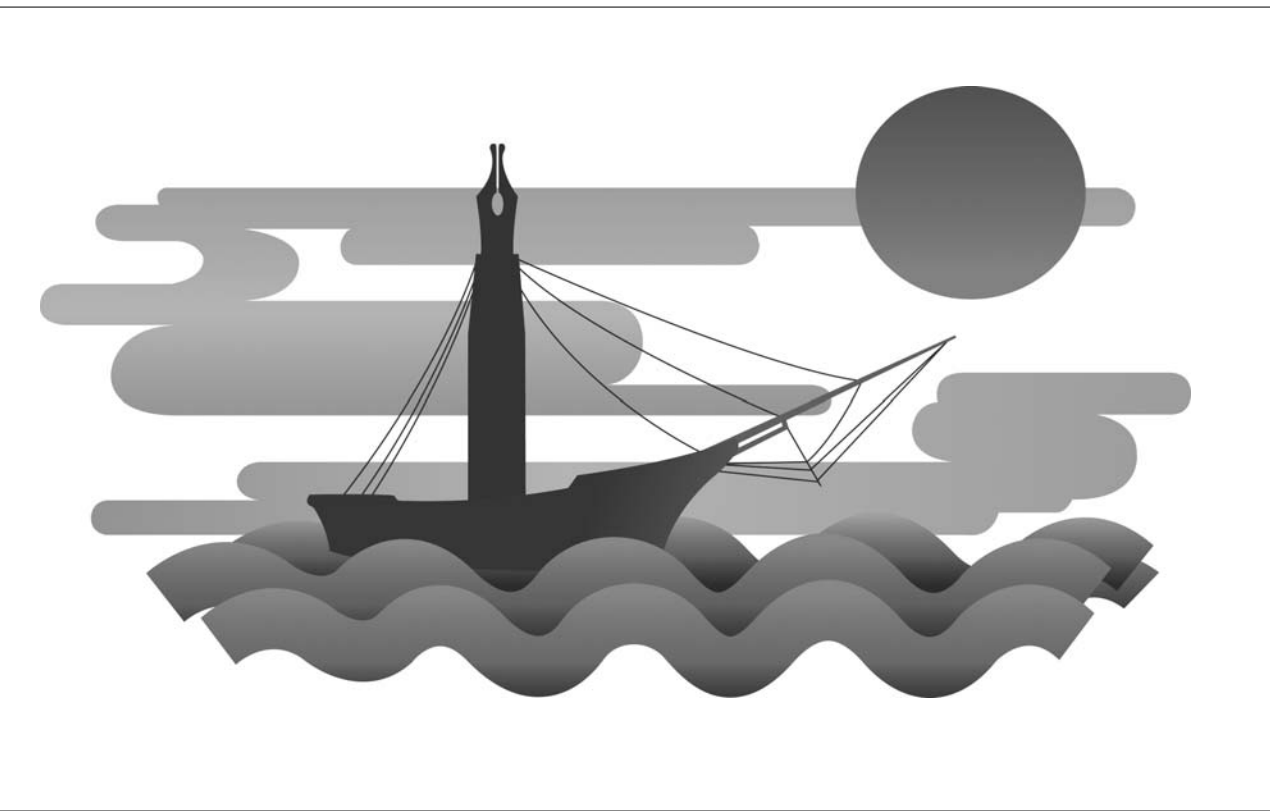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발전의 쌍두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복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늘 중심 주제로 삼아 달라는 당부이다. 여기 새만금개발청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이제 도민의 여망에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지역의 업체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늘려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도민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싶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생각을 넓혀주기 바란다. 새만금 개발청이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할 일은 앞으로도 많다. 그 기여할 부분들을 찾기 위해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에게도 보다 확실하게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을 향해 전북업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 여기 도민의 정서를 대변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에게 특별히 다시 주꾸는 바이다.

경제 살리기에 사찰을 걸어아

전북도에게 할 말이 있다. 경제 살리기에 사찰을 걸어아겠다. 지역 경제가 죽으면 함께 죽고 지역 경제가 살면 함께 살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아니할 말로 전북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러할 것 없이 해야 한다. 그만큼 전북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 그 몸 던지기를 말로만 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북도가 해마다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군산의 모습이 예전 그대로이다. 남원도 그렇다. 예전 그대로이다. 전북도는 군산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대답해 줄 일이다. 남원의 경우도 똑같다. 남원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드는지 대답해 줄 일이다. 군산은 군산대로 힘들어 하고 있고 남원은 남원대로 힘들어 하고 있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자동차 공장 폐쇄 이후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남원도 남원대로 서남대 폐교 이후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전북도가 먼저 잘 알고 있으려니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작금이다.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지않아도 청년 인구의

유출이 계속 되는 마당인데 지역에 문제가 계속 쌓이고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악물어야 한다. 그동안 자존을 말하고, 제후 찾기를 말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지 의문이다. 그것은 슬로건이 도청에서 나온 이후 언론사마다 그걸 받아서 확성기 소리를 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은 게 있다. 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전북도가 떨치고 일어나야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 말이다. 전북도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군산과 남원의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천명했으면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주지하는 대로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지난날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전북이 유일했다. 그리고 그후 경제성장률 0%의 기록도 전북이 유일했다. 지난해의 사정도 역시나 비슷할 수준이었다. 전북도는 숨이 가빠 몸부림치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전북도가 예전보다 더 큰 관심과 더 큰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제 정말이지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